

## 퍼거슨 vs 귀네슈 두 명장의 자존심 대결

맨유 - FC서울 오늘밤 서울월드컵 경기장 한판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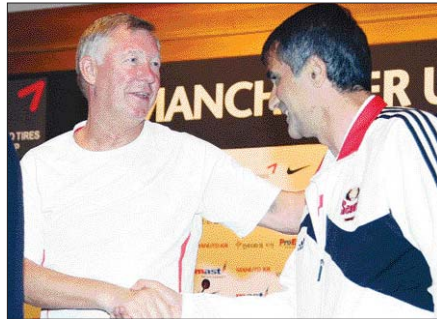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FC서울 세놀 귀네슈 감독이 23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금호타이어컵 맨유 코리아투어 2009'(24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 기자회견을 열고 멋진 승부를 다짐했다.

세계 축구의 명장으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사령탑은 2007년 첫 대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당시 승부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뒀던 퍼거슨 감독은 "2년 전에 비해 선수 구성에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팀 능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자신감을 내보냈다.

퍼거슨 감독은 "2007년 (한국 투어에서) 받았던 감독과 같은 느낌을 다시 얻게 되기를 바란다. 박지성이 2년 전에는 부상으로 뛰지 못했지만 올해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다"면서 한국 팬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에 맞서는 귀네슈 감독은 "2년 전에는 4골 차로 졌지만 우리는 그때보다 더 준비

됐고 발전했다. 최선을 다해 이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명품 구단을 한국에서 맞게 돼 기쁘다. 우리도 한국과 아시아에서 명품 구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내일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터키를 3위에 올려놓은 귀네슈 감독은 "2007년에는 우리 팀이 플레이오프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정도로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나 K-리그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최근 경기 내용도 좋기 때문에 내일 희망이 있고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에드윈 판데르사르(골키퍼)는 "열정적인 팬들의 모습에 기대가 크다. 내일 멋진 경기를 통해 많은 팬에게 기쁨을 선사하겠다"면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이번에는 박지성이 뛰기 때문에 100%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FC서울 세놀 귀네슈 감독이 23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오를 밝혔다. FC서울의 주장 김치곤도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팬들이 좋아하는 경기를 하겠다. 한국에도 좋은 팀과 좋은 선수, 좋은 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훌륭한 팀과 경기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나 팀으로도 영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상대로 우리 수비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볼 기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화순고 화랑대기 결승 진출

연장점전 끝 대구고에 역전승...개성고와 우승 다툼

화순고가 제 61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화순고는 23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대구고와의 화랑기 준결승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5-4로 역전승을 거뒀다.

양팀은 1회부터 찾아온 대량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1회초 대구고의 선두타자 여정원이 2루타로 출루하면서 무사 2루가 됐다. 희생번트로 1사 3루를 만든 대구고는 3번 김선민의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기록했지만 병살타가 나오면서 공격이 마무리 됐다.

1회말 화순고는 정진기가 몸에 맞는 볼로

나가면서 무사 1루의 기회를 잡았다. 이형범의 희생번트를 처리하던 투수가 2루로 송구했으나 타자 주자가 모두 세이프가 되면서 무사 1·2루, 3번 김선현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진 무사 1·2루에서 신진호의 희생번트가 실패하면서 3루로 뛰던 주자가 아웃됐지만 볼넷을 얻어내며 만루가 됐다. 대구고는 전날 동성고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둔 에이스 이재학을 1회부터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재학의 기세에 눌린 화순고는 연속 삼진을 당하며 추가 득점의 기회를 놓쳤다. 이후 3회와 5회에 1점씩을 내주며 1-3

로 쫓기던 화순고가 7회 반격을 시작했다.

7회말 좌전안타로 출루한 화순고 고영표가 도루로 2루를 홈친 뒤 정진기의 2루타때 홈을 밟으며 2-3을 만들었다. 상대 유격수의 실책으로 1점을 보낸 화순고는 3-3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10회초 승부처기에서 대구고가 1점을 뽑으며 3-4. 10회말 무사 1·2루에서 화순고 정진기의 2루타로 4-4로 균형을 맞추었고, 2사 만루 풀 카운트에서 서우현이 끝내기 볼넷을 얻어내면서 5-4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전국대회 첫 우승을 노리는 화순고는 24일 오후 1시 개성고와 맞붙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성 있어 팬들은 즐거워  
 자 환호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훈련을 관람하던 축구팬들이 박지성 선수가 입장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KIA 소식

○화순고 출신의 김선빈이 모교의 화랑기 경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모교의 경기가 진행되던 시간 그라운드에서 타격 훈련을 하던 김선빈은 프런트들에게 스코어를 물어보며 응원을 보냈다.

한편 김선빈의 친동생 김선현은 화순고의 3번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출전해 1회 동점 적시타를 기록하는 등 형 못지 않은 야구 실력을 선보였다.

### 최희섭 올스타전 홈런왕 욕심

○"최 욕심" 최희섭이 올스타전 홈런레이스에 욕심을 내고 있다. 25일 홈런레이스에

### 김선빈 "선현이 잘하네" 동생 응원

출전하는 최희섭은 23일 경기에 앞서 올스타전 당일 공을 던져줄 파트너를 고르는 작업을 했다. 애초 이현곤이 배팅볼을 던져주기로 했으나 이날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다른 선수를 물색한 최희섭은 로페즈의 사촌형인 루이스 로페즈를 새로운 파트너로 지목했다. 사촌 동생의 활약을 지켜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루이스 로페즈는 도미니카 야구 국가대표 출신. 22일 경기에 앞서 KIA 선수들에게 배팅볼을 던져주는 역할을 자처했던 루이스 로페즈는 23일에도 일찍 경기장에 나와 사촌동생의 유니폼을 입은채 배팅볼을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경기장 특성·가족석 신설

○KIA 타이거즈가 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특석과 가족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석은 홈 뒷편에 64석, 가족석은 1루에 32석, 외야에 각각 56석이 신설됐다. 1루와 외야 가족석에는 모두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특석과 가족석은 인터넛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특석의 경우 성인 2만원, 중고생 1만5천원, 어린이 1만원이다. 1루 및 외야 가족석은 1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목포** **국제여객선터미널 정기셔틀버스운행 (7/25일부터~매일)**

셔틀버스 및 안락 편의 및 예약 : (주)수동관광 062)383-9042